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상효·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태후 연구위원 061-820-2165 taehoo82@krei.re.kr
내 용 문 의 김상효 연구위원 061-820-2218 skim@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33호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6. 1.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233호(2026. 1. 16.)

2025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상효·박혜진

요 약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농업인 79.2%, 도시민 85.1%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에서 2023년 대비 6.1%p 증가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강해지고 있음. 반면, 도시민의 농업정책 관심도(26.2%)와 관련성(21.3%) 인식은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은 강화, 추가 세금 부담 의지는 약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76.8%)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함. 그러나 추가 세금 부담 찬성(57.8%)과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성(51.3%)은 전년 대비 각각 4.5%p, 3.2%p 감소함. 귀농·귀촌 의향도 51.3%로 전년 대비 6.0%p 감소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이 주요 동기로 나타나 영농보다 자연 친화적 생활환경을 우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 직업 만족도는 개선 추세이나 소득·노동 관련 부담은 여전

- 농업인의 전반적 직업 만족도(31.3%)와 농사일 만족도(35.8%)는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소득에 대한 불만족 비중은 39.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주요 불만 요인으로는 '노력 대비 낮은 보수'(52.6%)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일손 부족'(20.2%)이 농업경영 최대 위협으로 꼽혔고,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가 뒤를 이어 구조적 요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농업·농촌정책 만족도 낮고, 기후변화·자연재해가 최대 관심 이슈로 부각

- 정부의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10%대 초중반에 그쳤으며, 농업인의 부정적 평가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민은 중립적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정책에 대한 체감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한편,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최우선 관심 이슈로 꼽았으며, 특히 도시민의 자연재해 관심은 전년 대비 10.4%p 급증함.

농업인-도시민 간 농식품 가격 및 통상정책 인식 차이 뚜렷

- 농식품 가격상승 원인으로 농업인은 '이상기후'를, 도시민은 '유통 구조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음. 통상 이슈에서도 농업인은 '소득 안정·농촌경제 보호'(53.2%)를, 도시민은 '국익·식량안보'(40.4%)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남. 한편, 재해보험 가입률은 54.5%로 높으나 개선 요구가 제시되어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음.

0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국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인식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함.
 - 2025년도 조사 결과,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은 농업인 79.2%, 도시민 85.1%로 대다수 국민이 향후 농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농업인 61.0%, 도시민 65.2%로 2023년 대비 각각 1.4%p, 6.1%p 증가함. 이는 도시민의 증가 폭이 농업인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1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2015	2017	2019	2021	2023	2025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16.1	16.0	11.0	8.4	7.9	7.0	1.7	3.5	6.1	4.1	3.5	2.9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7.2	14.9	14.7	10.9	13.4	13.7	21.1	18.8	15.8	12.3	16.0	12.1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소계)	33.3	30.9	25.7	19.3	21.3	20.7	22.8	22.3	21.9	16.4	19.5	14.9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19.7	26.3	21.2	26.9	18.5	18.2	16.3	17.7	23.5	21.3	21.4	19.9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45.0	41.5	52.6	53.2	59.6	61.0	60.9	60.0	54.5	62.3	59.1	65.2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64.7	67.8	73.8	80.1	78.1	79.2	77.2	77.7	78.0	83.6	80.5	85.1
모름/무응답	2.0	1.4	0.5	0.6	0.6	-	-	-	-	-	-	-
합계	100.0											

주: 2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2. 농업정책 및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

도시민의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수준,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아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다’ 26.2%, ‘없다’ 26.5%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함.
 - 관심이 ‘많다’와 ‘없다’의 응답은 전년 대비 각각 4.2%p, 1.0%p 감소하였으며, 특히 ‘관심이 ‘많다’는 응답 비율은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반면, ‘보통이다’는 47.3%로 전년 대비 5.2%p 증가하여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많다’는 응답 비중은 21.3%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남.
 - 반면, 관련이 ‘없다’의 응답은 35.3%로 전년(34.9%)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보통이다’는 43.4%로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 도시민의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의 관심도 인식 변화

문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우 많다	5.8	6.2	7.7	3.3	3.4	6.0	3.9	5.5	3.7	3.3	3.9	5.1	3.7
많은 편이다	29.2	30.9	36.5	33.0	34.5	36.3	30.3	30.0	26.8	27.5	32.8	25.3	22.5
많다(소계)	35.0	37.1	44.2	36.3	37.9	42.3	34.2	35.6	30.5	30.8	36.7	30.4	26.2
보통이다	37.1	38.8	33.1	37.5	32.5	37.1	36.8	36.4	36.5	36.4	37.0	42.1	47.3
없는 편이다	25.2	22.0	20.4	22.8	27.4	19.3	26.1	24.5	28.5	29.6	23.1	22.7	19.7
전혀 없다	2.7	2.1	2.3	3.4	2.2	1.3	3.0	3.6	4.5	3.2	3.1	4.9	6.7
없다(소계)	27.9	24.1	22.7	26.2	29.6	20.6	29.1	28.0	32.9	32.8	26.3	27.5	2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표 3 도시민의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 정도 인식 변화

문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우 많다	7.7	4.9	8.8	3.9	4.7	7.0	4.3	4.2	4.8	3.5	3.1	4.7	3.5
많은 편이다	32.8	28.1	28.8	26.6	27.9	27.9	24.3	28.5	22.3	24.0	30.1	18.5	17.8
많다(소계)	40.5	33.0	37.6	30.5	32.6	34.9	28.6	32.7	27.1	27.5	33.2	23.2	21.3
보통이다	34.5	37.9	36.3	39.3	34.5	38.6	34.6	36.7	35.7	38.5	40.0	41.9	43.4
없는 편이다	21.9	25.1	22.0	24.3	29.8	24.2	31.2	25.9	30.7	27.5	22.8	25.9	25.3
전혀 없다	3.1	4.1	4.1	5.9	3.0	2.3	5.6	4.7	6.5	6.5	4.0	9.0	10.0
없다(소계)	25.0	29.2	26.1	30.2	32.8	26.5	36.8	30.6	37.2	34.0	26.8	34.9	3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3.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는 도시민은 응답자의 76.8%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는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전년에 이어 상승함.
 - 가치가 '많다'('많은 편이다'와 '매우 많다' 합산)의 응답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하였고,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합산)의 비율은 3.6%, '보통이다'는 19.6%로 전년 대비 각각 1.6%p, 0.4%p 감소함.

표 4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평가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혀 없다	0.2	0.1	0.2	0.0	0.1	0.3	0.4	0.7	0.4	0.3	0.9	0.7
별로 없다	4.1	3.3	6.5	3.5	4.7	5.1	8.7	7.7	5.9	8.1	4.3	2.9
없다(소계)	4.3	3.4	6.7	3.5	4.8	5.4	9.1	8.4	6.3	8.4	5.2	3.6
보통이다	29.5	26.1	31.3	26.5	22.9	30.4	34.6	32.2	30.7	32.8	20.0	19.6
많은 편이다	54.3	58.7	55.1	61.9	49.7	55.5	48.4	49.3	58.0	52.9	55.5	52.7
매우 많다	11.9	11.8	7.0	8.1	22.5	8.7	7.8	10.1	5.0	5.9	19.2	24.1
많다(소계)	66.2	70.5	62.1	70.0	72.2	64.2	56.2	59.4	63.0	58.8	74.7	76.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관련 수준은 감소한 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 평가는 증가

-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도와 관련성이 '많다'는 도시민 응답 비중은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치가 '많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고 수준을 기록함.
 - 이로 인해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관련 수준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도시민의 농업·농촌 문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 가치 판단 변화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의 57.8%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 동의 비율 전년 대비 4.5%p 감소함.
 -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은 57.8%로, 여전히 절반 이상의 도시민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적극 찬성’은 9.6%로 전년 대비 4.6%p 감소하여,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확신이나 강한 지지 의사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임.
 - 한편, ‘반대’는 23.9%, ‘잘 모르겠다’는 18.3%로 전년 대비 각각 3.6%p, 0.9%p 증가함.

표 5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단위: %
적극 찬성	4.3	3.7	1.4	9.6	14.5	18.4	7.7	17.8	16.5	15.1	14.2	9.6	
찬성한다	46.6	55.7	53.2	44.2	38.5	41.8	45.5	42.3	49.3	47.3	48.1	48.2	
찬성(소계)	50.9	59.4	54.6	53.8	53.0	60.2	53.2	60.1	65.8	62.4	62.3	57.8	
반대한다	31.3	27.7	32.2	38.7	32.4	34.7	33.6	25.9	22.7	28.1	17.3	19.3	
적극 반대	6.7	5.0	6.6	2.7	5.5	1.4	3.4	1.9	1.3	2.5	3.0	4.6	
반대(소계)	38.0	32.7	38.8	41.4	37.9	36.1	37.0	27.8	24.0	30.6	20.3	23.9	
잘 모르겠다	11.0	7.8	6.6	4.8	9.0	3.6	9.7	12.1	10.3	7.0	17.4	18.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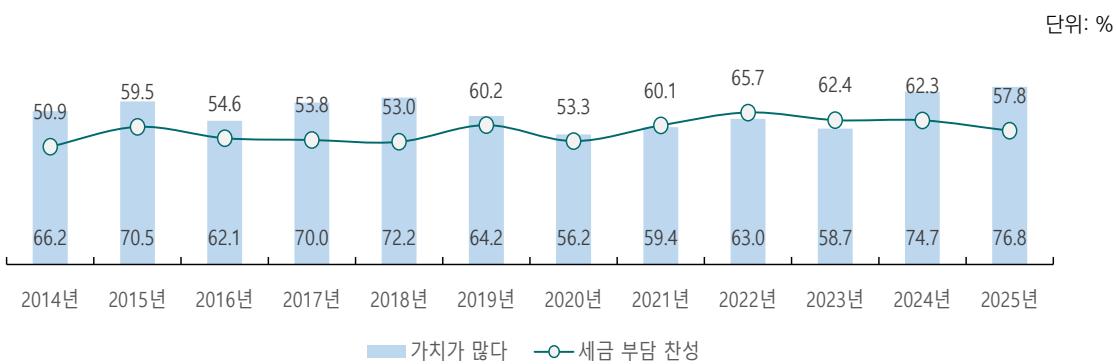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과 추가 세금 부담 동의 간 격차 확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76.8%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한 반면, 추가 세금 부담 ‘찬성’ 응답은 57.8%로 전년 대비 4.5%p 감소하며 두 응답 간 격차는 19.0%p로 확대됨.
 - 특히 전년에 이어 2025년에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향이 나타나, 가치 인식과 비용 부담 의지 간 격차가 지속·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 및 추가 세금 부담 인식 변화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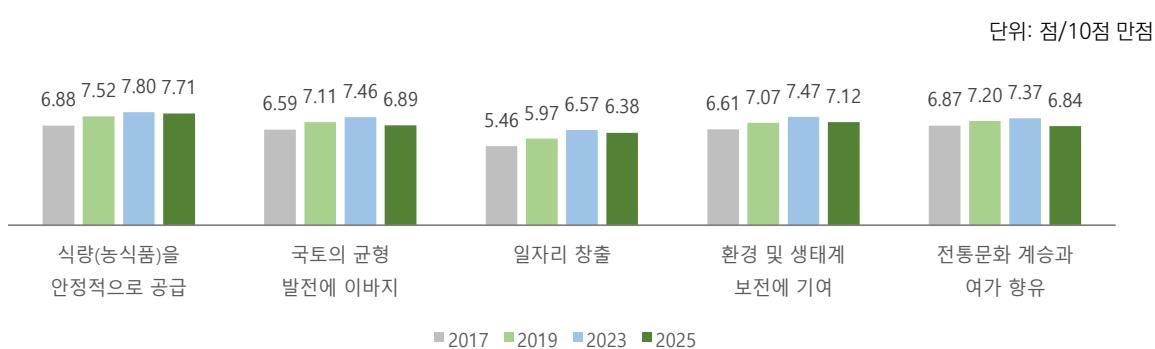
2)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도시민,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

-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식량(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7.71점)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이어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7.12점),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6.89점), '전통문화 계승과 여가 향유'(6.84점), '일자리 창출'(6.38점)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능은 6~7점대의 높은 평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기능은 2025년 7.12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일자리 창출' 기능은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능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3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10점 만점)



주 1) 2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찬성' 의견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찬성' 의견이 2025년 소폭 감소하였음.
 -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 합산)하는 도시민 비율은 51.3%로

전년 대비 3.2%p 감소한 반면, '보통' 36.3%(+1.3%p), '반대'('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 합산) 12.5%(+2.0%p)로 각각 증가함.

그림 4 도시민의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 변화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4.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51.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의향이 '있다'('조금 있다'와 '매우 많다' 합산)과 답한 비율은 51.3%로 절반을 소폭 상회하였으나, 전년 대비 6.0%p 감소함.
 - 반면, 의향이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 합산)의 응답은 45.7%로 전년 대비 6.0%p 증가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3.1%로 전년(3.0%)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6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우 많다	15.0	8.7	10.5	6.7	18.7	8.5	9.7	10.5	12.6	8.9	16.9	12.5
조금 있다	28.6	30.3	36.5	34.5	25.4	26.2	31.6	23.9	24.6	28.3	40.3	38.8
있다(소계)	43.6	39.0	47.0	41.3	44.1	34.6	41.3	34.4	37.2	37.2	57.3	51.3
별로 없다	32.9	28.7	25.1	29.5	33.7	35.7	37.2	34.7	35.3	37.8	26.9	28.5
전혀 없다	19.7	25.8	23.4	25.8	20.2	23.6	14.9	26.1	20.7	21.3	12.8	17.1
없다(소계)	52.6	54.5	48.5	55.3	53.9	59.3	52.1	60.8	55.9	59.1	39.7	45.7
잘 모르겠다	3.7	6.5	4.5	3.4	2.0	6.1	6.5	4.7	6.9	3.7	3.0	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이 여전히 주된 동기로 작용

-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51.1%)와 '시간에 얹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2.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동기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임.
 -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8.2%),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5.5%),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5.3%),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4.0%),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3.3%) 등의 응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한편, '기타(대규모 감염병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포함)' 응답은 0.4%로 전년 대비 감소함.

표 7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이유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5.7	6.4	11.2	5.2	4.3	3.4	4.8	5.1	5.5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3.8	5.1	3.7	9.0	7.9	10.2	12.0	7.5	8.2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58.1	53.4	46.0	43.2	53.0	43.0	41.0	49.6	51.1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3.3	2.8	2.8	3.0	1.9	4.3	10.6	1.2	4.0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7.4	8.9	9.0	7.7	4.6	9.0	9.7	2.0	3.3
시간에 얹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18.3	22.3	21.4	20.5	21.9	24.6	16.5	28.3	22.2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3.2	1.1	5.3	7.5	4.6	4.1	4.8	5.1	5.3
기타(대규모 감염병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포함)	0.2	0.0	0.6	3.9	1.8	1.4	0.6	1.2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5. 시사점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도시민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도시민 과반은 농업의 향후 경제적 역할(85.1%)과 공익적 기능(76.8%)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에 대한 기여를 핵심 가치로 높게 평가함.
- 그러나 이러한 가치 인식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비율(57.8%)과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찬성(51.3%)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가치 인식과 실제 부담 의사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음.
- 귀농·귀촌 의향은 51.3%로 전년 대비 6.0%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유지함. 주요 이유로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영농 활동보다는 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촌 생활 여건 개선과 함께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계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02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2.1.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및 농업경영 위협 요인

농업인의 직업·업무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소득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와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 반면, 농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불만족 응답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항목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남.
 -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31.3%로 전년(23.6%) 대비 7.7%p 증가하였으며, '불만족'의 비율은 19.3%로 전년(20.4%) 대비 1.1%p 감소함.
 -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35.8%로 전년(30.5%) 대비 5.3%p 증가하여 직업 만족도 관련 지표 중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으며, '불만족'의 비율은 17.2%로 전년(19.0%) 대비 1.8%p 감소함.
 - (농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12.9%로 전년(10.2%) 대비 2.7%p 증가하였으나, '불만족'의 비율은 39.2%로 전년(45.9%) 대비 6.7%p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표 8 농업종사 직업 만족도 변화

구분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농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4년	19.9	41.9	32.9	21.6	42.6	29.7	8.5	30.1	55.2	
2015년	20.6	42.1	32.8	22.1	40.9	30.0	9.3	31.1	53.8	
2016년	17.9	37.1	41.3	19.7	40.2	34.6	7.6	25.0	62.6	
2017년	17.7	39.9	38.5	18.9	39.7	34.8	10.3	28.6	54.3	
2018년	18.1	47.3	32.0	28.6	44.7	24.7	15.0	38.9	43.8	
2019년	23.3	41.2	33.3	26.6	42.2	28.1	10.1	29.9	56.7	
2020년	24.9	49.4	24.4	25.9	46.7	24.6	12.4	34.3	51.0	
2021년	28.0	46.6	23.0	28.6	45.5	21.4	14.4	38.1	43.1	
2022년	25.3	48.3	22.2	31.3	45.1	18.3	12.8	34.6	47.3	
2023년	18.3	50.6	27.7	25.2	48.1	21.2	10.2	35.6	48.9	
2024년	23.6	55.0	20.4	30.5	48.2	19.0	10.2	42.4	45.9	
2025년	31.3	48.9	19.3	35.8	45.7	17.2	12.9	47.2	39.2	

주 1) 만족 = 만족과 매우 만족 합산, 불만족 =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합산.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 직업 불만족의 주요 요인으로 '노력 대비 낮은 보상' 및 '육체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아

- 농업인이 직업에 불만족하는 주요 사유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가 52.6%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20.4%),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하다'(10.9%),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9.5%) 등이 뒤를 이었음.
 - 농업 직업 불만족 사유의 가장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노력 대비 낮은 보수'는 60세 미만, 영농경력 20년 미만,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육체적 부담'의 응답은 60세 이상, 영농경력 20년 이상,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노력 대비 낮은 보수'와 '육체적 부담'은 전년 대비 각각 6.4%p, 5.4%p 증가한 반면, '정부 관심·지원 부족'과 '장래 불안'은 각각 7.9%p, 1.7%p 감소함.
 - 한편, '기타' 사유로는 기후변화 피해, 농자재비 인상, 생산량 감소, 판매 부진, 병충해 등이 제시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농업인의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기타	무응답	
전체	(666)	52.6	20.4	10.9	9.5	2.0	2.3	2.2	
연령	60세 미만	(160)	60.9	14.3	14.1	4.1	0.7	3.7	2.3
	60세 이상	(506)	49.8	22.5	9.8	11.4	2.5	1.9	2.1
영농 경력	20년 미만	(221)	61.2	17.6	14.6	3.4	0.6	1.4	1.3
	20년 이상	(445)	46.8	22.2	8.4	13.7	3.0	3.0	2.8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276)	51.6	24.9	9.5	7.8	0.9	2.4	3.0
	2천만 원 이상	(382)	54.4	15.4	13.4	12.4	0.7	2.4	1.4
	무응답	(8)	47.0	6.9	1.2	0.0	43.7	1.2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년), 국민의식조사.

표 10 농업인의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변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49.0	59.3	60.4	53.7	51.5	50.1	50.4	52.7	54.6	46.2	52.6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31.5	18.7	16.8	15.5	14.4	7.8	11.6	10.1	9.4	11.2	9.5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10.0	10.0	11.5	14.0	12.2	12.3	9.6	16.5	15.5	18.8	10.9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5.7	8.0	9.3	12.0	14.2	20.4	18.5	13.2	11.6	15.0	20.4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1.7	1.8	1.6	4.8	2.2	1.5	1.1	1.7	2.2	0.9	2.0
기타	2.0	2.2	0.3	0.0	1.9	1.3	2.0	3.1	2.9	2.5	2.3
모름/무응답	-	-	-	-	3.6	6.6	6.9	2.8	3.6	5.4	2.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2.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2025년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과 '농업 생산비 증가' 지목

- 농업인이 꼽은 2025년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일손 부족'(20.2%)과 '농업 생산비 증가'(18.5%)로 나타났으며,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17.2%),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FTA 등 개방 확대)(7.3%)', '후계 인력 부재'(7.3%) 등이 뒤를 이었음.
 - '일손 부족'은 전년 대비 4.6%p 증가하며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해, 농업경영의 최대 위협 요소로 부상함.
 - 한편,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은 연도별 변동을 보이면서 대체로 10% 미만 수준을 유지하였고, '농가 부채 증가', '농업정책 효과 부족(농업정책 오류)', '영농자금 압박', '조수 피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농지 부족' 등은 5% 미만의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표 11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위협 요소 변화(순위 문항)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업 생산비 증가	14.2	13.8	14.0	16.6	15.6	14.3	19.1	23.5	21.1	18.3	18.5
일손 부족	14.1	15.0	16.6	17.0	15.3	15.9	19.4	16.8	15.9	15.6	20.2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5.8	9.5	6.9	7.9	9.6	16.3	13.5	11.5	13.3	20.0	17.2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 피해	3.0	4.3	3.6	7.7	5.6	13.6	4.5	4.0	9.8	7.3	5.8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 불안정	10.6	8.4	8.7	7.5	8.0	7.0	7.5	7.5	6.2	5.8	5.7
판로 확보 어려움	9.6	10.1	7.7	7.3	9.7	7.4	6.8	6.7	5.5	7.1	4.7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감소	5.5	4.9	4.7	4.8	4.7	4.4	4.2	5.8	5.3	3.6	2.7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FTA 등 개방 확대)	17.6	12.2	14.6	4.4	10.7	3.3	4.2	5.1	4.7	4.6	7.3
농가 부채 증가	4.1	4.2	4.0	5.0	4.4	3.9	3.1	3.9	4.0	2.8	3.4
후계 인력 부족/부재	5.3	4.8	6.4	7.7	3.8	3.4	5.2	3.7	4.0	3.8	7.3
농업정책 효과 부족(농업정책 오류)	5.4	5.2	6.1	5.4	5.5	2.7	5.8	4.5	3.6	4.5	2.9
영농자금 압박	1.8	2.0	1.7	1.7	2.8	2.3	2.0	2.3	3.1	2.1	2.2
조수 피해	1.5	2.2	2.2	3.3	2.1	2.8	2.1	1.5	1.2	2.3	0.6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0.8	0.6	1.2	1.3	0.7	0.9	0.4	0.6	1.0	0.6	0.5
농지 부족	0.3	0.6	0.6	1.2	1.0	1.3	1.4	1.2	0.8	1.3	0.7
기타(무응답 포함)	0.6	2.3	1.0	1.2	0.7	0.5	0.9	1.6	0.5	0.3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1~3순위까지 응답하는 복수응답 문항으로 응답 항목별 비율을 합산하면 100%를 초과함. 이를 총합이 100%가 되도록 조정하여 제시함.

3)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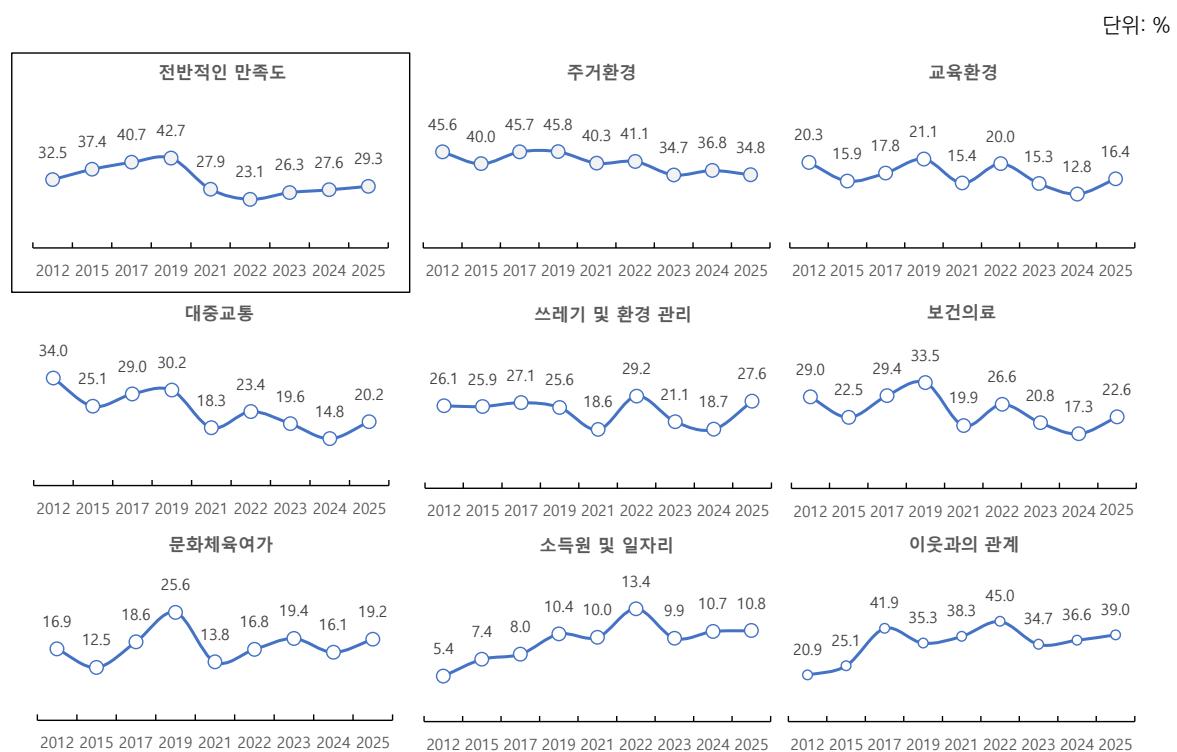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3. 농촌 생활 만족도

농업인의 전반적인 농촌 생활 만족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

- 농촌 생활 전반에 '만족'('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 합산)하는 비율은 29.3%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생활 분야에서 만족도가 개선되었음.
 - '주거환경'(34.8%)은 전년 대비 2.0%p 감소하였고, '소득원 및 일자리'(10.8%)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그 외 주요 항목에서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음.
 - 전년 대비 증가한 항목은 '쓰레기 및 환경 관리' 27.6%(+8.9%p), '대중교통' 20.2%(+5.4%p), '보건 의료' 22.6%(+5.3%p), '교육환경' 16.4%(+3.6%p), '문화체육여가' 19.2%(+3.1%p), '이웃과의 관계' 39.0%(+2.4%p)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농업인의 농촌 생활 분야별 만족도 변화(만족한다)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4. 시사점

-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와 농사일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임. 다만, 농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 응답 비중이 여전히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업 노동 자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 수준에 대한 체감 개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여줌.
- 2015년 이후 농업 직업 불만족 사유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응답도 증가하여 노동 부담 문제가 더욱 부각됨. 반면,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와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라는 응답은 감소하여, 농업인의 불만족 요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보상 수준과 노동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
- 2025년도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일손 부족’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하며 1순위를 차지하였고, ‘농업 생산비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여건 변화’도 주요 문제로 나타남. 이는 농업경영 환경에서 노동력 확보와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영 리스크가 단기적 문제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
-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교육환경’, ‘대중교통’, ‘보건의료’, ‘쓰레기 및 환경 관리’ 등 생활 인프라 관련 만족도가 특히 개선됨. 반면, ‘소득원 및 일자리’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적 체감 개선 간의 속도 차이를 보였음.
- 농업인의 직업 인식과 농촌 생활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 만족도, 노동 강도, 일손 부족 등 경제·노동 관련 지표는 여전히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향후 농업인의 체감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소득 안정과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03



2025년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3.1. 현 정부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에서 농업인과 도시민 간 인식 차이 뚜렷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정책 만족도에 대해 '만족'('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 합산)한다는 응답은 농업인 12.4%, 도시민 16.6%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에 대해서 '잘했다'('대체로 잘했다'와 '매우 잘했다' 합산)는 응답은 농업인 13.0%, 도시민 15.3%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 농업인은 '불만족'('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합산) 40.4%,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와 '대체로 잘못했다' 합산) 31.0%로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시민은 각각 15.0%, 14.9%로 농업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음.
 - 한편, '보통이다'의 응답 비중이 도시민에서 만족도 68.4%, 정책 평가 69.8%로 농업인(만족도 47.2%, 평가 55.8%)보다 높게 나타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체감 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특히,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잘못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농업인 21.9%p, 도시민은 12.5%p로 감소하여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뚜렷하게 완화되었음.

표 12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변화

단위: %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우 불만족	7.7	11.1	8.5	12.6	14.5	11.7	13.8	4.7	0.6	0.7	0.1	0.8	2.8	0.5	7.7	2.1
약간 불만족	37.3	38.9	32.6	32.4	55.2	43.8	37.9	35.7	16.7	14.6	9.2	11.5	21.9	12.6	18.8	12.9
불만족(소계)	45.0	50.0	41.1	45.0	69.7	55.5	51.7	40.4	17.3	15.4	9.3	12.3	24.7	13.1	26.5	15.0
보통이다	42.4	38.8	43.1	37.4	20.3	33.9	40.2	47.2	64.7	60.7	60.3	61.4	45.9	53.1	58.1	68.4
약간 만족	8.7	9.4	12.9	15.6	0.6	9.2	6.2	12.0	17.3	23.9	30.1	25.4	7.5	33.6	14.4	15.9
매우 만족	0.6	0.5	0.4	0.3	6.7	0.5	0.8	0.4	0.7	0.1	0.4	0.9	21.9	0.2	0.9	0.7
만족(소계)	9.3	9.9	13.3	15.9	7.3	9.7	7.0	12.4	18.0	23.9	30.5	26.3	29.4	33.8	15.3	16.6
모름/무응답	3.3	1.3	2.5	1.7	2.8	0.9	1.1	0.1	-	-	-	-	-	-	-	-
합계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표 13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정책의 전반적인 평가 변화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매우 잘못했다	12.1	12.4	3.6	0.8	8.6	2.1
대체로 잘못했다	41.4	40.5	27.4	15.5	18.8	12.8
잘못했다(소개)	53.5	52.9	31.0	16.3	27.4	14.9
보통이다	35.6	37.3	55.8	55.3	57.1	69.8
대체로 잘했다	9.9	7.2	12.7	28.1	14.5	14.7
매우 잘했다	0.4	1.0	0.4	0.3	1.0	0.6
잘했다(소개)	10.3	8.2	13.0	28.4	15.5	15.3
모름/무응답	0.6	1.6	0.2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2. 2025년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이슈

농식품 분야 주요 관심 이슈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부각

- 2025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이슈로 '기후변화'(농업인 26.5%, 도시민 18.4%)와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농업인 15.2%, 도시민 20.7%)를 꼽음.
 - 농업인은 전년에 이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최우선 관심 이슈로 유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농민/농촌기본소득'(11.0%), '농산물 가격 안정'(10.1%), '공익직불제'(6.7%) 등 정책 및 소득 이슈에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임.
 - 도시민은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이 20.7%로 전년 대비 10.4%p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후변화' 역시 18.4%(+4.0%p)로 크게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 안정'은 8.3%(-9.5%p)로 전년 대비 감소함.
 - 전반적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환경·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가운데, 농업인은 정책 및 소득 이슈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2025년 가장 관심 많았던 농식품 분야 이슈(순위 문항)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24	2025	2024	2025
자연재해(태풍, 홍수 등)	14.8	15.2	10.3	20.7
기후변화	28.5	26.5	14.4	18.4
식량안보 문제	4.1	4.7	7.2	10.4
공익직불제	6.5	6.7	0.9	1.0
일자리 창출	2.1	2.8	3.8	5.0

(계속)

구분	농업인		도시민	
	2024	2025	2024	2025
청년농 육성, 청년 창업 지원	2.1	2.1	4.1	3.5
가축 질병과 방역정책	1.3	1.0	3.1	2.9
건강한 먹거리 공급	1.0	1.2	7.1	5.4
농산물 가격 안정	10.0	10.1	21.3	18.1
농작물 재해보험	3.2	3.5	1.6	1.4
농업인 안전보험	1.0	1.1	0.7	0.4
농민수당	6.5	7.2	1.4	1.1
농민/농촌기본소득	8.9	11.0	2.6	2.1
영농형 태양광 보급	1.1	1.6	0.8	0.2
동물복지	0.5	0.2	2.7	1.0
농산물 물가	7.5	5.2	17.8	8.3
기타	0.4	0.2	0.2	0.1
모름/무응답	0.5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1년 단위 조사 문항에 해당함.

2) 복수응답을 중복응답 처리 후 100.0%로 표현함.

3)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3.3.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개선 방향

농업인 54.5%,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정부 보조율 확대'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 현재 농작물 또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54.5%로 나타났으며, 주로 60세 미만, 영농경력 20년 이상,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이상 농가에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해보험 가입자(n=909)가 제시한 향후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 보조율 확대'(24.1%)가 가장 높았고, 이어 '보상금 산정 기준 개선'(17.7%), '보장 범위 확대(품목, 재해 종류 등)''(15.8%), '보장 수준 확대'(13.4%), '피해조사 및 보상 절차 간소화'(13.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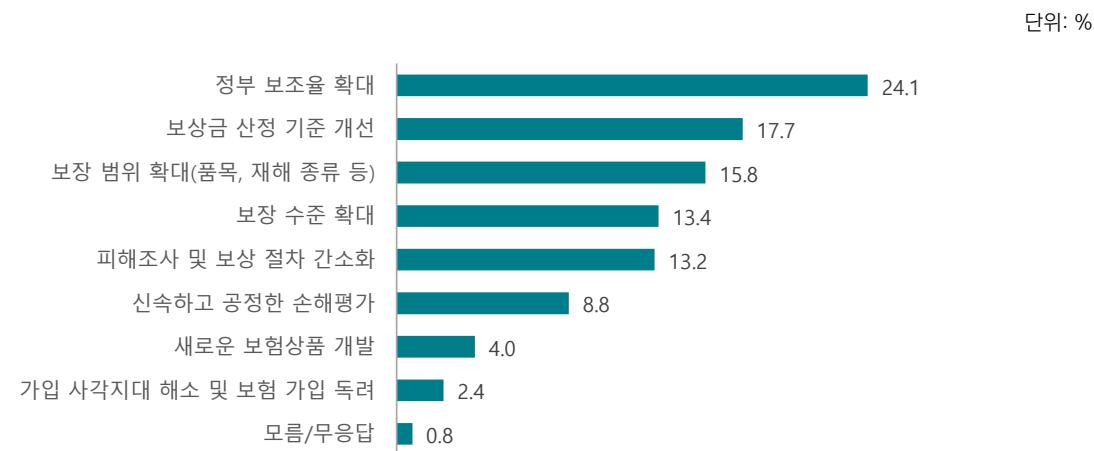
표 15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 가입 여부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단위: %
전체		(1,369)	54.5	44.3	1.1	
연령	60세 미만	(312)	58.9	41.1	0.0	
	60세 이상	(1,057)	53.0	45.4	1.5	
영농경력	20년 미만	(422)	47.1	52.8	0.1	
	20년 이상	(947)	59.8	38.4	1.8	
연평균 소득	2천만 원 미만	(487)	46.0	53.2	0.8	
	2천만 원 이상	(863)	65.0	34.8	0.3	
	무응답	(19)	45.6	29.8	24.6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그림 6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의 중요 개선 방향(순위 문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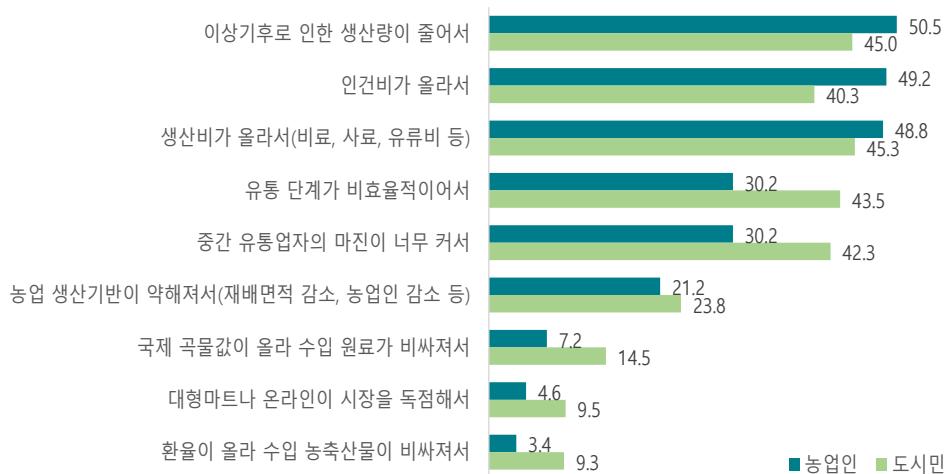
3.4. 농식품 가격 및 최근 농업 통상 관련 이슈

농식품 가격상승 요인에 대해 농업인은 '이상기후', 도시민은 '생산비·유통구조'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을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강조하는 요인에는 차이가 나타남.
 - 농업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50.5%)를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49.2%), '생산비 상승'(48.8%), '중간 유통업자 마진 확대'(30.2%), '유통 단계 비효율성'(30.2%) 순으로 응답함.
 - 도시민은 '생산비 상승'(45.3%)과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45.0%)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어 '유통 단계 비효율성'(43.5%), '중간 유통업자 마진 확대'(42.3%), '인건비 상승'(40.3%) 순으로 나타나 유통구조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종합적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및 인건비 상승'을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도시민은 유통구조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농식품 가격상승 이유(복수응답)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국민의식조사.

농업 통상 관심도 및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업인과 도시민 인식 격차 뚜렷

- 농업 통상 이슈(미국 관세 협상, CPTPP 가입 검토 등)에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있다'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합산)의 응답은 농업인 66.3%, 도시민 40.8%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농업인 25.0%, 도시민 6.2%로 큰 차이(약 4배)를 보임.
 - 향후 농업 통상협상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농업인은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지역 농촌경제 보호'(53.2%)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반면, 도시민은 '국익과 식량안보 확보'(40.4%)를 최우선 과제로 꼽음.
 - 도시민의 경우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촌경제 보호'(18.3%), '수출 확대와 시장 개방의 균형'(18.3%), '농업 국제 경쟁력 강화'(15.3%)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었음.

표 16 최근 농업 통상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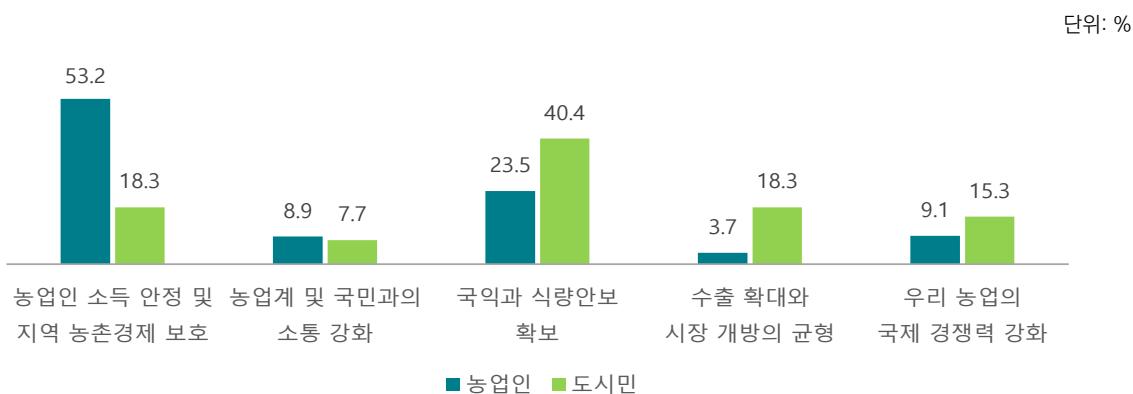
단위: %

항목	농업인	도시민
매우 관심이 있다	25.0	6.2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41.3	34.6
관심이 있다(소계)	66.3	40.8
보통이다	24.7	41.9
별로 관심이 없다	7.3	14.9
전혀 관심이 없다	0.3	2.5
관심이 없다(소계)	7.6	17.3
모름/무응답	1.4	-
합계	100.0	100.0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국민의식조사.

그림 8 향후 농업 관련 통상협상 시, 정책 우선순위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5), 국민의식조사.

3.5. 시사점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만족' 또는 '잘했다')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10%대 초중반에 그쳐 정책 성과 체감이 제한적임. 농업인은 부정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시민은 중립적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정책 관심·체감도와 문제 인식 강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
- 2025년 농식품 분야 주요 관심 이슈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최우선으로 선택하였으며, 특히 도시민의 관심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환경·안전 문제가 농업을 넘어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업인은 이에 더해 소득 및 농업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업인의 약 3분의 2가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제도 활용도는 높으나, '정부 보조율 확대', '보장 범위·수준 확대', '보상 기준 개선' 등 다수의 개선 요구가 제시됨. 이는 기후변화와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인건비 상승'을 공통적으로 인식함. 다만, 농업인은 '생산 여건 악화'를, 도시민은 '유통 비효율성'과 '중간 유통 마진'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여 원인 진단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남.
- 농업 통상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농업인은 '소득 안정'과 '지역 농촌경제 보호'를, 도시민은 '국익과 식량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 도시민은 통상정책 가치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분산된 반면, 농업인은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농업 통상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부록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하반기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

-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전국 2,869명(농업인 1,369명,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¹⁾
 - 조사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당년도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비고정 문항은 원내 농업·농촌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음.
 - 이 자료는 조사 내용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조 바람.

부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369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방법	전국 읍면 거주 농업인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주: 도시민 조사는 그동안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해 오다 2025년 '온라인 패널조사'로 변경하여 진행함. 온라인 조사는 전통적인 면접조사 방법보다 응답자의 응답 유연성이 커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고, 면접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이점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 중인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 전문기관인 (주)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